##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개질기/연소기 시스템 모사

<u>홍재민</u>, 이상득<sup>\*</sup>, 양대륙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, 한국과학기술연구원<sup>\*</sup>

#### Reformer/Combustor Simulation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System

Jae Min Hong, Sang Deuk Lee<sup>\*</sup>, Dae Ryook Yang Dept. of Chemical & Biological Engineering, Korea University, KIST<sup>\*</sup>

### <u>서론</u>

연료전지는 무공해, 높은 발전효율과 폐열 이용 등으로 전체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어 기존의 수력, 화력, 원자력에 이어 제 4세대 발전 기술로서 기대대고 있다. 특히 노후 화력 발 전소의 대체 및 지역 발전용으로 예상되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는 선진국에서도 이제 막 상용화 를 위해 준비중인 단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.

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본체와 연료인 천연가스, 메탄올, 석탄가스등을 수소로 개질하여 수소가 많은 연료가스로 만드는 개질기, 발전된 직류전기 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직교류 변환기 및 제어장치 그리고 배열이용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. 이중 개질기는 연료전지의 종류, 사용처에 따라 요구되는 개질기의 사양이 달라지게 되며 개질기의 효 율은 연료전지 본체의 효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.

본 연구에서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질 시스템으로 평판형 개질기를 모사하였으며 모멘텀에 대한 식을 고려하여 기존의 가스의 선속도와 압력을 가정하였던 것과 달리 압력강하를 고려하였고 개질기 본체와 연소기의 상호 관계도 고려하였다.

### 본론

개질 공정은 촉매 고정층 반응기에 원료가스를 넣어주고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공정이다. 반응 기 안의 온도가 700K 이상의 고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연소기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공정이다.

개질 시스템은 크게 개질기와 연소기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.

반응기는 전체 길이는 20cm이고 폭은 25cm, 높이 1.5cm의 개질기 단위셀 5단과 높이 2.0cm의 연소 기 6단이 적층되어있는 형태이고 연소기 쪽에는 높이 0.5cm의 연료가 들어가는 채널이 있으며 이 를 통해 연소기 전체로 균일하게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. 개질 촉매로는 Ni계 촉매가 사용되었으며 연소 촉매로는 Pd계 촉매가 사용되었다. 개질기의 원료로는 CH4, H2O가 사용되었고 H2O/CH4의 원 료비는 3.17로 하였으며 연소기의 연료로는 연료전지 스택의 anode output을 재순환하여 사용하였 다. 개질기의 개질가스와 연소기의 연소가스는 counter-current로 흐르며 열교환을 한다.



그림 1 평판형 개질기 실험장치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8권 제2호 2002년

 1. 반응식

 (1) 개질기 반응

 개질반응 : CH<sub>4</sub>+H<sub>2</sub>O ↔ 3H<sub>2</sub>+CO (⊿H<sub>1</sub>=206kJ/mol)

 전환반응 : CO + H<sub>2</sub>O ↔ H<sub>2</sub>+CO<sub>2</sub> (⊿H<sub>2</sub>=-41kJ/mol)

 (2) 연소기 반응

 H<sub>2</sub>+ 1/2 O<sub>2</sub> ↔ H<sub>2</sub>O (∠H<sub>3</sub>=-241.818kJ/mol)

 CO + 1/2 O<sub>2</sub> ↔ CO<sub>2</sub> (∠H<sub>4</sub>=-110.525kJ/mol)

2. 수학적 모델

(1) 가정

반응기는 길이방향으로만 변화가 있으며 가스의 점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, 연소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모든 지점에 균일하게 들어가며 반응속도는 연소반응이므로 매우 빠르고 완전연 소하여 반응속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.

(2) Equation of Continuity

$$\begin{split} \frac{\partial C_{CH_{1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H_{1}})}{\partial z} - \frac{1-\varepsilon}{\varepsilon} \rho_{cat} r_{1} \\ \frac{\partial C_{H_{2}O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H_{2}O})}{\partial z} - \frac{1-\varepsilon}{\varepsilon} \rho_{cat} (r_{1}+r_{2}) \\ \frac{\partial C_{H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H_{2}})}{\partial z} + \frac{1-\varepsilon}{\varepsilon} \rho_{cat} (3r_{1}+r_{2}) \\ \frac{\partial C_{CO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})}{\partial z} + \frac{1-\varepsilon}{\varepsilon} \rho_{cat} (r_{1}-r_{2}) \\ \frac{\partial C_{CO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+ \frac{1-\varepsilon}{\varepsilon} \rho_{cat} v r_{2} \\ \cdot \dot{\mathfrak{E}} r_{2} \\ \cdot \dot{\mathfrak{E}} r_{1} \\ \frac{\partial C_{CO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+ \frac{F_{fuel}}{LA} (a_{1}+a_{2}) \frac{\partial C_{CO_{2}}}{\partial t} 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- \frac{F_{fuel}}{LA} \frac{(a_{1}+a_{2})}{2} \\ \frac{\partial Cc_{CO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+ \frac{F_{fuel}}{LA} (a_{3}+a_{4}) \\ \frac{\partial Cc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+ \frac{F_{fuel}}{LA} (a_{3}+a_{4}) \\ \frac{\partial Cc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\\ \frac{\partial Cc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+ \frac{F_{fuel}}{LA} (a_{3}+a_{4}) \\ \frac{\partial Cc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CO_{2}})}{\partial z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N_{2}})}{\partial z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&= -\frac{\partial (vC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 t} \\ \frac{\partial Cv_{N_{2}}}{\partial$$

v : 가스 속도(cm/s) r<sub>1</sub>/r<sub>2</sub> : 개질/전환 반응 속도 a<sub>1</sub>/a<sub>2</sub>/a<sub>3</sub>/a<sub>4</sub> : 연소기로 들어가는 연료가스중 H<sub>2</sub>O/H<sub>2</sub>/CO/CO<sub>2</sub>의 몰분율 (3) Equation of Energy

$$\frac{\partial E}{\partial t} = -\frac{\partial (vE)}{\partial z} - (1-\varepsilon)\rho_{cat}(\Delta H_1r_1 + \Delta H_2r_2) + \frac{KW}{A}(T_c - T) - Q_{loss}$$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8권 제2호 2002년

 $\frac{\partial E_c}{\partial t} = -\frac{\partial (vE_c)}{\partial z} - (1-\varepsilon) \left( \Delta H_3 a_2 + \Delta H_4 a_3 \right) \frac{F_{fuel}}{LA} - \frac{KW}{A} (T_c - T)$ E<sub>i</sub>/E<sub>ci</sub> : 개질기/연소기 단위부피당 에너지(KJ/cm) W : 반응기 폭(cm) T<sub>i</sub>/T<sub>ci</sub> : 개질기/연소기 가스 온도(K) Q<sub>loss</sub> : 외부로의 열손실 (4) Equation of State

$$\rho = \frac{PM_{W}}{RT} \qquad \qquad \rho_{c} = \frac{P_{c}M_{Wc}}{RT_{c}}$$

p/pc : 개질기/연소기 가스 밀도(g/cm)P/Pc : 개질기/연소기 압력(比a)Mw/Mwc : 개질/연소 가스 평균분자량R : 기체상수(5) Equation of Motion

$$\rho \frac{\partial v}{\partial t} = -\rho v \frac{\partial v}{\partial z} - \frac{\partial P}{\partial z} \qquad \rho_c \frac{\partial v_c}{\partial t} = -\rho_c v_c \frac{\partial v_c}{\partial z} - \frac{\partial P_c}{\partial z}$$
$$\frac{\partial P}{\partial z} = -1.75 \frac{\rho v^2}{d_p} \frac{(1-\varepsilon)}{\varepsilon^3} \qquad \frac{\partial P_c}{\partial z} = -1.75 \frac{\rho_c v_c^2}{d_{pc}} \frac{(1-\varepsilon)}{\varepsilon^3}$$
$$\frac{\partial P_c}{\partial z} = -1.75 \frac{\rho_c v_c^2}{d_{pc}} \frac{(1-\varepsilon)}{\varepsilon^3}$$



그림 2 Reformer/Combustor steady-sate profile

# <u>결론</u>

개질기 원료의 초기 온도는 900K로 하였고 압력은 3기압으로 하였을 때의 steady-state profile이다.

흡열반응인 개질 반응은 반응기 입구에서 격렬히 일어나므로 반응기 입구에서는 개질기 가스의 온도가 떨어지며 연소기에서 계속해서 열이 공급되므로 개질기 가스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counter-current로 흐르는 연소기 가스의 초기 입구의 온도가 높지 않으므로 개질 가스의 출구 근처 에서 다시 온도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.

#### 향후계획

시스템에서 외부로의 열손실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unsteady-state를 계산하고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해야한다.

## 참고문헌

1. He, W. and Kas Hemmes, Fuel Processing Technol., 67, 61 (2000).

2. Hou, Kaihu and R. Hughes, Chem. Eng. J., 82, 311 (2001)